

오피니언

테마칼럼

책과 세상

신재생에너지

문화·상상력

도시발전



강 막 실

“

책읽기는 책을 읽는 행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의 삶으로까지 확장되어야 한다. 책읽기는 책의 내용을 외우거나 그 책이 주는 교훈을 머릿속에 기억하는 것에서 그쳐서는 안 된다. 책을 읽은 아이들의 느낌이 고스란히 아이들의 삶 속으로 들어와 아이들과 함께 살아 움직여야 한다. 그럴 때 예만 나무의 숨결을 담고 있는 한 권의 책은 살아있는 유기체로 거듭날 수 있다.

”

우리 세대의 어린 시절에는 읽을 책이 흔치 않았다. 그래서였을까. 언니, 오빠가 보는 교과서까지 만지작거리며 읽어대던 나에게, 엄마는 어느 날 계룡사의 '소년소녀세계문화전집' 한 권을 사주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일이었으니 벌써 40년도 넘은 이야기이다.

자그마한 2단 나무 책꽂이에 꽂혀 있던 붉은 책 표지의 50권을 받아들고, 팔짝팔짝 뛰었던 내 어린 시절의 모습을 지금도 기억한다. '작은 아씨들', '검은말 이야기', '삼국지', '날아가는 교실', '북유럽 이야기', '톰 소여의 모험', '셰익스피어 이야기' 등 수많은 이야기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그 책들의 표지가 많아 해질 때까지 읽고 또 읽어 거의 외우다시피 했다. '보물섬'을 읽을 때는 아무도 없는 집에서 어찌나 무서웠던지, 문고리를 잡고 그때 그것이 부족해 문고리에 숟가락까지 꺾고 이를 뒤집어서 가며 읽었던 기억이 생생하다. 상상은 보이는 실물보다 훨씬 무섭기 때문이었으리라. 이처럼 내 어린 시절의 책읽기는 일상이었고 놀이였다. 어쩌면 내 평생 책읽기의 토대는 그때 만들어졌는지도 모르겠다.

요즘 아이들에게 책이 넘칠 대로 넘쳐나고 있다. 특히 2000년대를 넘어서면서부터는 아이들 책을 내는 출판사가 부쩍 늘었다. 어른들은 갈수록 책을 읽지 않고 아이들은 갈수록 많은 책을 읽고 있기 때문이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조사에 따르면 성인 일인당 연평균 독서량은 2007년 12.1권에서 2010년 10.8권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해온 반면, 초등학생은 2007년 22.4권 이후 급격히 늘어 2010년에는 일인당 연평균 60권에 육박했다고 한다.

이 조사의 수치가 얼마나 정확한가는 차치하고서라도 아이들의 독서량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만큼은 확실하다. 그러나 어른들의 책읽기는 자발적인 반면, 아이들의 책읽기는 반드시 그렇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다.

대입 논술의 영향으로 혹은 창의력과 도창력을 키우는 명목으로 초등학생들의 책읽기가 국·영·수처럼 주입식 과외학습 형식으로 펴져가고 있는 게 안타깝다. 말하자면 책을 읽고 각기 다르게 느껴야 할 생각이나 깨달음까지 주입식으로 강요되고 있다면 큰일이라는 이야기이다.

그 속에서는 아이들의 자발적 책읽기가 운전히 살아남기 힘들다. 읽는 책의 양은 늘어날지언정 한 권의 책에서 얻는 상상력과 몰입의 즐거움과 생각의 확장이 그 양과 비례하지는 않는다. 대입 논술 시험 답안지가 전원일률적으로 비슷비슷해서, 학생에서 좀 벗어나더라도 자기만의 독특한 생각을 정리한 내용에 점수를 더 주었다는 어느 대학교수의 이야기는 새겨들을 필요가 있다.

출판사들이 모여 사는 과주 출판도시의 전망 좋은 한 건물에는 '꿈꾸는 교실'이라는 자그마한 어린이도서관이 있다. 이 도서관에는 아이들이 이를 책만 가득한 게 아니다. 도서관은 물다리를 벗어나 순식간에 강과 산이 있는 넓은 놀이터로 변신하기도 한다. 아이들은 심학산에서 뛰어놀다 들어와 책을 읽기도 하고, 눈 오는 날

이면 옷감에서 눈싸움을 하다 들어와 책을 보기로 한다.

일상과 놀이의 구별이 없는 아이들에게 도서관은 모험과 상상력의 공간이다. 놀이터가 된다. 물론 여러 가지 책읽기 프로그램도 진행되고 있다. 책 읽고 그림자극 놀이하기, 주인공 바꿔 이야기해보기, 책 읽은 느낌을 그림으로 그려보기, 책 속의 한 장면을 손수건에 물들이기, 책과 연계한 목공놀이와 생태놀이, 토론수업 등 그 프로그램은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하고 기발하다.

어른들에게 책읽기는 성찰의 의미가 크다면 아이들에게 책읽기는 무조건 즐겨워야 한다. 책읽기가 남과의 경쟁에서 남을 누르고 이기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누구를 무시하고 잘난 척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어서는 더더욱 안 된다.

책읽기는 책을 읽는 행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의 삶으로까지 확장되어야 한다. 책읽기는 책의 내용을 외우거나 그 책이 주는 교훈을 머릿속에 기억하는 것에서 그쳐서는 안 된다. 책을 읽은 아이들의 느낌이 고스란히 아이들의 삶 속으로 들어와 아이들과 함께 살아 움직여야 한다. 그럴 때에만 나무의 숨결을 담고 있는 한 권의 책은 살아있는 유기체로 거듭날 수 있다.

<사계절출판사 대표>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종·고·칼·럼



이 원 재

얼마 전 가족관계에 대한 질문을 본 일이 있다. 가족을 직계부모로만 알고 있는 사실에 40년대에 태어난 나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다. 아무리 학교에서 시대라지만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가? 할아버지, 할머니의 귀엄을 받으며 살던 그때는 당연히 아버지, 어머니보다 못 아는 신이었다. 한없이 인자하고 존중하셨던 그침소리에 온 집안 식구들이 긴장을 했던 그때를 생각한다면 아무리 세대가 바뀌었다고 해도 이런 수준의 차이가 있을까?